

### 3 장 유일신에서 삼위일체로

#### A. 주제

- 삼위일체론은 단순한 숫자개념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자체, 즉 신성의 이해에 관한 물음을 포함하는 오랜 탐구과정의 정점이다.
-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→ 그리스도(예수)는 눈에 보이는 “하느님의 형상” → 사람들을 교육하여 → 하느님을 이해하도록 만들려는 목적 → 하느님의 강의 목적

#### B. 문제점

-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예수와 성경 속에 계신 하느님의 임재는 새로운 이해를 요구했으며, 하느님 안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되었다.
- 즉, 어떻게 하나와 셋을 이해할 것인가?

#### C. 논점

그리스도교 이전 고대근동에서는 신들의 3 인조 배열이 보편적 : 세대의 삼위일체, 동일신의 삼위일체, 외관상의 삼위일체

4 세기 이전 그리스도교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: 하나님의 강이 아직 ---

히브리어에서 여성명사인 ‘영’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중성,

남성명사이기때문에 아버지, 어머니(= 성령), 그리고 아들이라는 초기 삼위일체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 : 성령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견해 등장

신약성서 어디에도 아버지, 아들, 성령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: 2 세기

영지주의자들의 몫

#### 1) 삼위일체와 포괄적 유일신론

양태론(modalism) ; 한분 하느님이 잇따른 세단계를 통해 아버지, 아들,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주장.

- 대중의 신개념과 쉽게 섞이고 유일신론을 유지했다는 면에서 가치인정

- 부신수난론 등으로 비판됨
- 교육받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성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하며 쇠하기 시작(2 세기경)

## 2) 삼위일체와 배타적 유일신론

양자론(adoptionism); 한분 하느님이 지위가 낮은 '아들'에 의해 섬김을 받음 - 인간  
예수가 아버지에 의해 '양자'로 채택되었다는 생각

종속론(subordinationism)

- 사모사타의 바울 ; 예수는 아래로부터 왔으며, 하느님의 아들로 선언된 단순한 인간이다
- 아리우스 ; 삼위일체론에 맞섬(삼위일체는 다신론). 왜냐면 하느님은 영원하고 알수없는 모나드. 그리스도(로고스)는 하나의 피조물일뿐. 아들의 온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 출교.

## 3) 삼위일체와 신들의 가계 ; 유출론

- 하나가 유출하여 다른 둘과 그 본질 자체를 공유한다.
- 유출론의 전제 ; 아들은 아버지의 실체 (요 5:18, 10:30, 14:9, 14:10)
- 양태론과 다른점; 예수가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의 본질 / 만든 '재료'가 아버지의 본질이다
- 성령에 대한 이해
- 영지주의의 공헌 ; 지구중심의 우주, 모나드, 일자가 다수로 펼쳐짐을 설명하는 유출론. 아버지의 신적 본질유출이 오직 아들과 성령에만 국한됐다. 무로부터의 창조 (두개의 첫째 원리들). 호모우시오스 "동일본질"

## 4) 정통의 해결책 : 381 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의 삼위일체

- 정치적 힘을 가졌던 이들이 신조를 만들고 "정교"를 규정함.
- 325 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니케아 신조를 생산했고 아리우스파의 패배
- 니케아 이후의 아리우스주의가 동방에서, 니케아교회는 서방에서 정교가 됨.
- 세 위격 속의 한분 하느님을 말하는 삼위일체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이 되어왔다.

#### D. 평가

- 삼위일체론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하느님의 강으로 흐르는 수많은 지류들이 끼친 공헌의 결과
-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발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(아픈만큼 성장?)
- 눈으로 볼수없는 하느님이, 하느님의 형상인 아들을 보내서, 인간의 불완전을 양육하고, 이끌고, 교육하여 아들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여지면 어느날 인간도 하느님 자신을 볼수 있을 것이다. (예수 살아내기?)

#### 생각해보기

1. 삼위일체 - 지금 우리에게 그 의미는?
2. 정교, 도그마, 신조 - 지금 우리에게 그 의미는?